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3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21일(음력 12월 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6월 3일 지방선거 불자 리더가 뛴다

최대 격전지 분류 서울시장에
김영배 · 박주민 등 출마 선언
김병주, 경기도지사 도전키로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예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재도전

신중일 · 김내영 기자

5개월 가량 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에 불자 리더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최고 격전지는 단연 서울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불자 정치인이다.

정각회 수석부회장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김 의원은 "결국 모든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하는데, 과연 스스로가 욕심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게 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시민의 실익을 위한 정책이 결국 시민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의 대표적 사찰인 진관사를 다니며 신행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역시 1월 14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언을 구했다.

박 의원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서울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마음을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인은 당장 일부만 보기보다 역사와 미래 세대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철학을 세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월 15일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은 진영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시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00만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이끄는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불자 정치인 김병주·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하기로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시절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심을 자랑하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본부장을 맡아 불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다. 1월 7일 태고종 신년하례회를 찾은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큰 원력을 하나 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았듯이 경기도를 대도약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는 원력"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의원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성철 스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로, 대학 1학년 때 사찰에서 공부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주호영 온라인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1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강원도지사에 재도전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불자 정치인이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 전 사무총장은 힘든 시절마다 사찰에서 마음을 다스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도(佛都) 부산에서는 '혜각'이라는 법명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다. 불교세가 강한 제주도에서는 불자인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AI시대, '마음 문명 불교' 토대 만들 것"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2026년 신년기자회견 개최

37대 집행부 차질 없이 마무리
선명상 대중화 위한 기구 설치
'젊은 불교' 이미지 지속 확산
"선거, 종헌종법 따라 엄중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70(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조계종이 올해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즉 디지털·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병오년은 제37대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를 맞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단 발전과 국민 마음 평안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 2570(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종책 과제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한국불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반석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천명했다.

조계종은 올해도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민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치유하고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선명상을 정신문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령·상황·수행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명상 지도서를 보급하고, 선명상 체험관을 운영해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역 거점, 현장 밀착형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특정 종교의례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평안 훈련"이라며 "선명상을 통해 국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그동안 우리 종단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 온 중요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화쟁 사상을 토대로 사회 양극화와 고립·대립 심화 등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공동체적 가치 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메시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불교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실천의 종교"라며 "노인과 장애인, 청년과 이주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상담, 치유, 복지, 돌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불교가 국민 곁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 간화선대회, 연등회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개최해 젊고 역동적인 불교의 흐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4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불교박람회를 시작으로 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로 확대 개최되며,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전 세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 불교박람회로 발전시켜, 세계 불교문화권과 상호 소통하고 통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젊은 불교' '힙한 불교' 이미지 확산을 위해 '나는 절로'와 '청년밥심' 등 세대와 호흡하는 혁신적인 포교 모델을 체계화하고, 지역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사부대중의 역량을 결집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 문화유산 가치 확립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힘쓴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유관기관(국가유산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양평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올해 보존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비파괴 분석기기인 적외선 카메라와 내시경 카메라, X-ray 장비 등을 활용해 해체가 불가능한 유물의 내부 상태와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과학적인 보존·복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3면에 계속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로터스월드 가비를 나르는 수리꾼꿀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